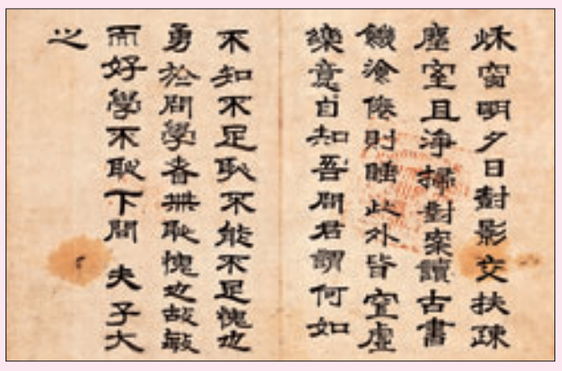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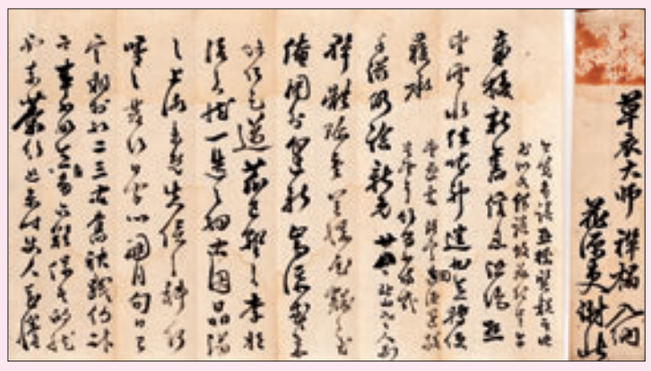
초의는 知音과 어떤 말을 나누었나



〈추수경공월〉첩은 총 24장으로 이뤄진 초의의 친필 시첩이다. 첩의 뒷면까지 전체 공개되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북산도인 변지화의 편지'는 1837년경 변지화가 진도목사로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

11월 3~5일 제13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메인전시

초의 친필저술 · 흑색 다관 등 관련 유물 40여점 대거 출품

교유한 사대부들 편지도 공개

차 시음회, 특강도 다채 마련

커피와 중국차가 지배한 한국의 차 시장. 녹차와 전통차는 명맥만 유지하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사실 한국의 차 문화는 조선 초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차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었던 사찰이 억불정책으로 위축되며 차 문화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초의 선사와 다산 정약용 등이 다시 차 문화의 중흥을 일으켰다. 이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초의 선사의 역사를 되짚어 현재 한국 차 문화의 현주소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3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메인전시로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가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을 연다. 11월 3~5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초의와 관련한 유물 40여점이 출품된다. 특히 그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들이 대거 공개돼 눈길을 끈다.

1부 '수행의 흔적-시문(時文)과 탑명에 담다'와 2부 '지음(知音)의 아름다운 교유-시와 편지로 나투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는 초의가 직접 사용했던 흑색 다관과 친필저술 〈초의선과〉〈추수경공월〉첩을 비롯해 석전 박한영의 음기가 수록된 〈초의탑명서본〉, 조희룡의 〈일정화영첩〉, 홍현주의 〈청량산방시축〉, 운암 김각의 〈운관시축〉, 소치 허련의 편지, 북산도인 변지화의 편지, 연천 홍석주의 편지, 기산 김명의의 편지 등 초의와 교유했던 사대부들의 편지들이 공개된다. 이중 〈초의탐명서본〉〈운관시축〉 등은 최초 전시되는 자료다.

먼저 〈추수경공월〉첩은 총 24장으로 이뤄진 초의의 친필 시첩이다. 해서(楷書), 예서(隸書), 행서(行書) 등 초의의 다양한 서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법 연구에 귀중한 단서가 된다. 특히 첩의 뒷면까지 전체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산도인 변지화의 편지는 1837년경 변지화가 진도목사로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편지에서 "〈동다행〉은 한양으로 보낼 때 사람을 시켜 급하게 등사했기에 지금 보니 잘못된 곳이 많다. 표시해놓은 부분 외에도 착오가 있는 듯하다. 오처를 좇아 개정해 돌아오는 인편해 다시 보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초의의 〈동다송〉이 처음 저술됐을 때 표제가 〈동다행〉이었으며, 변지화가 다른 사람을 시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 및 재송부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경추일〉 시축도 주목된다. 이는 초의가 1930년 경 경화사족과 교유를 넓힐 무렵, 수경(漱瓊)이 주관하는 시회에서 석범(石帆), 담산(覃山), 계당(溪堂), 초의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언 율시를 짓고 그 말미에 호만을 부기한 장축(長軸)의 시회 두루마리다.

이밖에도 응송 스님의 다구, 여주 예문당 이명균 도공의 고려청자 재현 다구 등 15점도 함께 전시된다.

3일 오후 2~4시와 4일 오후 1시~3시 30분에는 '동춘차'를 직접 시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동춘차는 초의-범해-원응-응송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제다법을 계승하고 있는 박동춘 소장이 직접 전남 승주 차밭에서 만든 잎차다. 이번 시음회는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차의 특징을 올곧이 감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일 오후 1시에는 박동춘 소장의 특강 '초의선사는 어떻게 초의차를 완성했을까'도 진행된다. 특강에 이어서는 '한국 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유토론이 예정돼 있다.

박 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차가 (역사적으로)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차가 나갈 방향이 제안될 것이다. 초의가 추구했던 차의 방향과 초의차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을 되묻고, 우리 차가 처한 현실적 고민과 방향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3회 부산 국제차어울림문화제는 11월 3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개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녹차 그릇 도자기 전시회 △삼매를 담다-찻그릇전 △김윤권 씨의 '나전칠기 차 및 향도구' 전시회 △박기봉 씨의 향도 전시회 및 체험관 △인성나무 숲 가꾸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usantea.kr)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51)809-155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돌에 새긴 금정총림 범어사 역사를 보다

범어사성보박물관, 10월 22일부터 2017 특별기획전



범어사사적비명(梵魚寺事蹟碑銘).

금정총림 범어사의 금석문이 총망라돼 한 자리에 모인다.

범어사성보박물관은 2017 특별기획전 '돌에 새겨진 범어사'를 10월 22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국 최초로 사찰 내 금석문을 조사 연구해 기획한 자리로 금석문 탁본과 실존 유물들을 소개, 의상대사 및 원효대사 진영과 그들의 기록을 새긴 금석문 등 화엄종의 옛 고승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 구성은 △1부 '범어사의 또 다른 역사' △2부 '왜 범어사에 사찰계가 많은가' △3부 '근대 고승의 산실, 범어사' △4부 '범어사가 기억하는 대중들'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최치원의 〈법장화상전〉과 〈삼국유사〉에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전한 화엄십찰의 하나'로서 기록된 범어사의 역사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범어사에는 의상대사와 동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와 관련한 문화재가 대거 소장돼 이번 특별전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사찰계'를 다룬다. 범어사는 역사상 사찰계가 많이 결성된 사찰 중 하나로 기록된다. 범어사는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임진왜란 등 겪는 과정에서 승려들이 사찰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사찰계를 결성, 십시일반 모아 사찰을 수리하고 지켜왔다. 이에 범어사에는 사찰계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금석문이 곳곳에 산재한다. 대표적으로 갑자갑원보사비(甲子甲員補寺碑)와 무자갑보사단비(戊子甲補寺壇碑)가 있다.

3부는 범어사의 근대 고승들을 주제로 한다. 범어사에는 고승들의 탑비 11기가 있는데, 모두 근대 이후 세워진 것이다. 탑비에 기록된 고승들은 성월당 일전 스님, 담해당 덕기 스님, 이산당 원오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진영과 유품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대중들의 시주와 관련한 역사적 문화재들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정희조 · 박덕운화 공덕비 김태원 · 김상품행 공덕비 등이 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이날 4시부터는 백희가무가, 5시 30분부터는 산사음악회가 이어진다. 전시는 내년 2월 6일까지.

박아름 기자

에이핑크 · 허각이 사찰에 나타났다!

석왕사 중창 40주년 개산대재 개최

석왕사는 중창 40주년 개산대재를 10월 20~28일 개최한다. 매년 인기가수 초청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석왕사 개산대재 시민음악회에는 올해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와 실력파 가수 허각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념음악회(25일 오후 7시 30분 부천시청 3층)△육바라밀 실천법회 및 오백나한 명호 독송기도, 오백나한재(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 초청 개산대제 회향 및 중양절 합동제사(28일 오전 9시) △시민음악회(28일 오후 6시) △고산 대종사 사진 전시회 및 야생화 전시회(28일까지) 등이 마련된다.

먼저 개산대제 문화행사의 꽃인 시민음악회는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 경내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무대에는 래퍼 산이가 오른데 이어 올해는 인기가수 '에이핑크'와 발라드 가수 허각이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나눔의 장'을 주제로 나눔장터도 열린다. 템플스토어 · 경인발아연구소 · 하얀코끼리 · 원종종합사회복지관 · 김포시중증장애인요양시설 가연마을 등 불교계 복지 시설들이 참여하는 나눔장터는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룸비니 운영시설 복지사업지원을 위해 열린다. 28일 오전 9시~오후 4시 진행된다.

이밖에 네일아트, 솜사탕 나눔 행사, 부채꾸미기, 커리커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석왕사는 "중창 40주년을 기념해 개산대제와 부대행사를 열고, '바른불교 · 실천불교' 이념을 선양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불교의 역할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032)663-7771~5 박아름 기자

정은하 작가, '화 · 불 · 법' 고려불화 展

10월 25~31일 인사동 갤러리환에서

용인대 불교회화연구소 정은하 작가의 불화 작품전 '화 · 불 · 법((畵佛法)'이 10월 25~31일 인사동 갤러리환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내용도, 아미타삼존도, 수월관음도, 양류관음도, 관경 16관변상도 등 고려불화의 제작기법을 충실히 구현한 정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정 작가는 "불화는 내 삶의 원동력이자 수행의 의미를 가진다"며 "매 순간 순간 붓 끝에 청정한 마음으로 광대원만한 부처님을 화폭에 담고자 노력했다. 천연 석채와 비단 등을 이용했으며 산수화, 사군자 화법, 서법 등 전통기법도 적극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 진리의 향기를 자극할 수 있는 불모의 마음가짐으로 매 작품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정 작가는 용인대 대학원 회화학과 불교회화전공을 졸업했다. 2013~2016 화불동연전, 2015 '부처로 통하다' 展, 2012 제11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등 다수의 기획 및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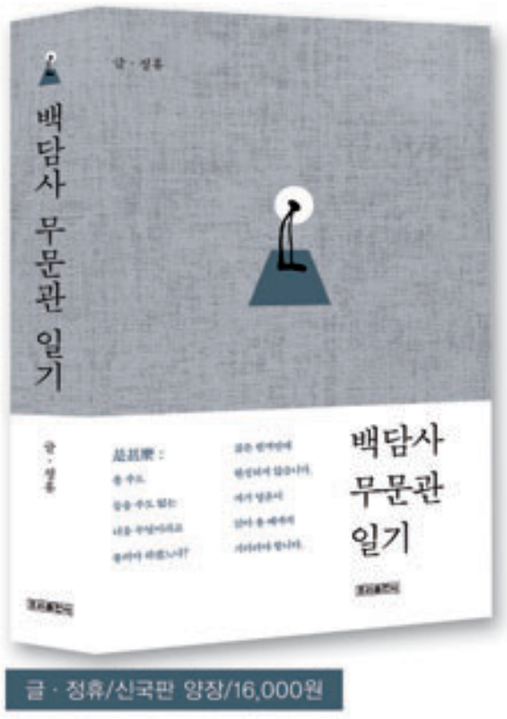
박아름 기자



정은하 作, 수월관음도, 100x60cm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歸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